

한·일등 14개국 대장경 전산화

입력부호 통일 논의

세계불전협, 23일~26일 日서 국제회의

세계전자불전협회(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공동회장 루이 랭카스터, 이하 불전협회)가 23일~26일 일본 오타나대학에서 '마크업과 코딩'(Markup and Coding)을 주제로 제4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14개국 80여명이 참여할 이번 회의에서는 대장경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사용된 '마크업' 통일안에 관한 의견이 조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려대장경>, 일본의 <대장경수대장경>, 중국의 <중화대장경>, 태국의 <태국대장경>, 미국의 <산스크리트어 장경> 등 8개국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업' 통일안은 언어에 상관없이 전자불전의 호환성을 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크업이란 컴퓨터에 문서를 입력 때 공인된 부호인 '태그'(Tag)를 붙이는 것. 컴퓨터에서 문서를 편집·열람하는 것은 일반 도서를 보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논문에는 내용 뿐만 아니라 주(註), 참고문헌, 작자, 대 학 등이 부수적으로 첨부된다. 일반 독자가 논문을 읽으며 주(註)를 참조할 때 손으로 책장을 넘기면 되지만 컴퓨터에 입력된 문서는 책 장을 넘길 수 없다. 태그를 사용해 문서를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본문, 주, 참고문헌, 저자, 연 도 등 논문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구조를 연결해 줄 수 있

본각스님 '근세불교사료 전산화' 발표

이종철교수 '산스크리트어 전자사전' 소개

도록 태그를 붙여야 한다. 상용되는 '마크업' 방법 중 'SGML'(표준 마크업 부호)은 영 어·산스크리트어·티베트 등의 문 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한 글·한문 문서에서 사용하기가 어 렵다. 또 'HTML'(문서이동 마크업 부호)과 'TEI'(문서 암호화 협약) 는 'SGML'보다 하위개념의 마크업



김관식



김관식



김관식



김관식

으로 적용 방법이 까다로워 대장경 전산화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전 협회는 '세계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새로운 '마크업' 시안 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각스님(중앙 승가대 교수)이 1860년~1960년까

전) 편찬 작업을 소개하며 종립·대석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이 '고려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코드 체계'를 발표해 한국의 불교문헌 전산화 현황을 보고한다.

이외에도 우르삼교수(일본 하나 조노대)가 '한문경전의 전산화' 버 나드교수(영국 옥스포드대)가 'TEI 구조' 아빙투교수(대만국립대)가 '인터넷에서 불교문헌 데이터베이스' 스토라르프교수(모스크바사회 과학연구소)가 '러시아에서 불교학 : 문헌전산화' 랭카스터교수(버클리

대)가 '산스크리트어 장경' 입력 프로젝트' 등 40여명의 석학들이 대장경 전산화 관련 보고와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한편 불교문헌자동화연구실(소장 해록스님)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대장경 전산화 현황과 불전협회의 활동을 알려줄 <세계전자불전협 의회 소식지>(Journal of EBTI)의 10월중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오종욱 기자



세계불전협 20여 개국 80여명 참가

유즈넷의 뉴스그룹

인터넷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불자들이 동일한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유즈넷'이라는 가상공간도 있다.

유즈넷(Usenet)은 넷스케이프와 같은 인터넷 검색프 로그램을 이용해 뉴스그룹(Newsgroup)을 방문하고 의 견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인터넷에 개설된 수많은 뉴스그룹 중에는 'talk.religion.buddhism', 'alt.zen', 'alt.meditation', 'soc.religion.eastern' 등 20여개의 불교관련 뉴스그룹이 있다. 뉴스그룹의 성격은 그룹 주스의 맨 글 단어로 알 수 있다. 이들 뉴스그룹은 주 로 명상(meditation) 선(zen) 불교(buddhism) 동양(eastern) 등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한다.

현재 'talk.religion.buddhism' 뉴스그룹에서는 도서출 판 율리시즈가 최근 출간한 <예수와 부처: 가르침의 유사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또 'alt.religion.buddhism.tibetan'에서는 각국의 불자 네티즌 들이 티베트 불교의 '환생'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 하고 있다. 따라서 유즈넷을 이용하면 각국 불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으며,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무정유성론' 문명병폐 해결책

김희정씨 박사논문 '담연스님 '금강비'에 나타난...'

담연(湛然, 711~782) 스님의 <금강비>(金剛錫)에 나타난 '무정 유성론'(無情有性論)은 현대인의 공허한 심성을 회복시키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불성론(佛性論)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만의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 소에서 '담나라 담연스님의 <금 강비>에 나타난 무정유성론 연 구'로 박사학위를 인정 받은 김 희정씨(도서출판 동진대 대표)는 <금강비>의 '무정유성론'은 불 교의 자비정신과 유가의 '여천지 합기대'(與天地合其德)이라는 대 인(大人)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라며 '담연스님은 초목·돌 등도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뿐만 아니라 만물에 자비·평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 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강비>는 당(唐) 시대에 불 교의 자비사상과 유교의 대인(大 人) 정신을 토대로 '무정유성'이



라는 중국적인 불성론을 주창하 고 천태종을 중흥시킨 담연스님 의 논서.

당시 인간의 본성(本性)을 끊임 없이 논제로 삼아왔던 유가와 도가 등 중국 전통철학은 불교의 불성(佛性)에도 관심을 집중시켰 다. 이때 담연스님은 불교의 자비 사상에 유가의 대인(大人) 사상을 접목시킨 중국적 불성론인 '무정유성론'을 통해 중국과 인 도의 철학을 회통(會通)시켰다.

김희정씨는 '무정유성론은 궁 극적으로 자비·평경·사랑이라 는 불교적 우주관'이라고 강조했다.

"唐 현실중시 불교 '십지경' 영향"

이홍만교수 '유심과 일심의 의미' 발표

십지경·십지경론 보살의 깨달음 지침서

6세기 중국에서 번역된 세친(世親)의 <십지경>(十地經), <십지경론>(十地經論)은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이라는 불교의 원 용(圓融) 논리가 담보교에 형성된 '즉사이진'(卽事而眞)이라는 현 실중시의 중국적 사유의 패러다임 속에서 융합·발전되면서 당(唐)불 교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분석이 나 왔다.

원광대에서 24, 25일 양일간 열 리는 제10회 한국철학대회에서 이홍만교수(원광대)는 '십지경'과 <십지경론>에 나타난 유심(唯心)과 일심(一心)의 의미'라는 논문을 발 표하고 두 경전에 나타난 '유심'과 '일심'은 화엄(華嚴)의 유심설과 연기설을 토대로 일심법계관을 전 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두 경전은 생사유전의 중생의 삶에 대한 설명서이고 동시 에 보살의 깨달음의 지침서"라며 "중생과 부처는 결코 틀이 아니 근 거가 바로 마음이었다고, 마음의 작 용을 통하여 모든 것이 존재로 인 식되고 구성된다는 점을 두 경전

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십지경>과 <십지경론>은 삼계가 곧 유심이라는 명제를 토대로 허망 한 삼계의 원인이 인간의 집착, 분 별심, 탐욕심의 마음 작용을 통하 여 구성된 허구적 망명의 세계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집착과 분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마음은 고정 된 실체나 속성이 없는 무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이라며 "마음을 함축적,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심과 일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간의 삶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자성정향된 본래 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것 은 상대적인 염·정(染·淨)이 아 니라 마음 자체가 진여이고, 부처 이며, 법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두 경전에서 편만성과 평 등성을 상징하는 허공과 바다의 비 유를 통하여 불변성을 상징하는 진 리적 화신인 금강장(金剛藏) 보살 을 등장시킨 것은 바다는 파도의



근거가 되어 서로 상응해 있지만, 파도를 일으킨 것은 바다가 아니라 바람인 것처럼 인간은 번뇌라는 현 상을 통해 진여의 세계를 볼 수 있 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 다. <육>

"이구오팔회, 1930년대 불교개혁 주도"

김광식씨 논문 발표

중앙불교전문학교(이하 중앙불 전) 제1회 졸업생들이 조선불교의 전위가 될 것을 선언하고 1931년 결 성한 이구오팔회(二九五八會)를 계 계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조종철교수장년기념논총>에서 '이구오팔회'를 발표한 김광식씨 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 구소)은 "이구오팔회가 결성된 시 기는 불교계 부흥의 여세가 지속 될 것이기 아니면 답보의 상황으

로 전락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 는 시점"이라며 "사찰령 등 당시 불교계 교정(敎政)의 식민지 체제 를 개혁하고 불교계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 했다"고 평가했다.

중앙불전 제1회 졸업생 회원 24 명이 1931년2월24일 특별회에서 이구오팔회를 결성한 것은 불교계 교정을 정상화하고 식민지 불교정 책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따라 서 이구오팔회의 회원은 '조선불 교청년회'와 불교계 비밀결사인

중, 티베트 간덴승원 복원공사 마쳐

중국이 문화혁명 당시 파괴한 티베트의 간덴 승원의 복원공사가 최근에 끝났다.

문화혁명 초기에 대포 공격에 의해 파괴된 승원 1만천㎡를 개 축·복원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 4년동안 금 41kg을 들이는 등 총 2억7천만원(미화 3백만 달러)을 투자했다.

1409년에 설립된 간덴 승원은 티베트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승 원으로 라사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다. 또 티베트 불교 의 분과인 게루그과파의 본원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은 이번 복원사업을 티베트 고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지 원하는 증거라고 선전한 반면 티베트 망명정부는 "이같은 복원 사 업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아누크 "불자 아니라면 벌써 자살"

"나의 말년은 수치와 굴욕과 절망으로 가득차 있다. 내가 만일 불교도가 아니었다면 진작 자살했을 것이다"

노르돔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74)이 최근의 내전과 경제 파탄으로 암담한 국가 현실과 관련해 지난 11일 각종 통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참담한 심 경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명하고 있 는 아시아에서 우리만이 전쟁과 불안 정·가난·부패·무법사태·에이즈 등으로 가득차 있다"며 "앙코 르 시대의 영광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파괴분자들'에 의해 무너 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시아누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시아누크가 국가에 대한 절망의 책임을 '파괴분자들'에게만 돌릴뿐 정작 국왕으로서 자신 의 역할은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일고 있다.



지묵스님 글모음집

구름처럼 떠돌고 물처럼 흐르는 운수갑자지묵스님. 멀고먼 길을 흐르며 엮어낸 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딱·딱·딱

죽비 짠 아침

지묵 저음 / 신국판 / 317쪽 / 7,000원

전봉산 문수봉 아래 풍수 좋은 토굴에 머물며 수도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계신 지묵 스님의 글 모음집. 지대방 한담, 고승일화, 백팔염주, 한 생각의 시작, 제2의 출가를 구성되어 있다. 연꽃과 같이 아름다운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1-5047, 5056 팩스: (02)393-9696

날마다 좋은날

부주르, 길상입니다

주로 신사에서 공부하신 수련자와 문필가를 통해 생활철학을 이기기에 온 지묵 스님의 글은 참된 한 글의 진보로 엮였다. 스님이 직접 신사에서 생활하면서 지어 온 수기생활을 일찍이게 세습하였고, 세운 번의 불자들의 기증 기초적인 원인에 대해 막대한 고리 만당시 행위를 벗어나 현명한 사후유치 마음으로 이토록 더불어 함께하는 글들의 모음이다.

지묵 저음 / 신국판 / 286쪽 / 5,600원

이것이 마음이다.

진심직설(真心直說) 강의

「禪과 敎를 두루 섭렵하신 無比스님의 강의」

마음, 마음, 마음. 참으로 찾기 어렵구나. 넓히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좁히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 아무 것도 없음을 아나니, 누구든 만약 부처가 되고 싶다면 단지 마음만을 구할지니라.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달마대사)

1. 진심직설 강의 테이프(90분) 18개 : 4만 5천원
* 아래의 강의 테이프도 계속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 지장경 강의 테이프(90분) 16개 : 4만원
3. 유마경 강의 테이프(90분) 38개 : 7만원
4. 임제록 강의 테이프(90분) 26개 : 5만원
5. 증도가, 신심명 강의 테이프(90분) 16개 : 4만원

■ 연 락 처 : 전화 (051)515-7870 (609-340)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3-10번지 경전연구실 문수원

■ 온라인 번호 : 부산은행 241-02-001356-2 김 지 애

■ 보 급 : 경전연구실 문수원 대종 합장